

美·日·유럽의 情報通信市場 동향

美 國

이익증가율 암달이 1위

지난해 미국 情報通信 분야 매출액 순위는 1위 IBM, 2위 DEC로 같고, 바로크와 86년과 합병한 지 2년째 되는 유니시스는 5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 86년 3위의 AT&T를 제치고 그자리로 올라섰다.

웍스테이션의 수요증가에 의한 마이크로컴퓨터 시장의 부활과 트랜잭션처리에 대한 인식제고 등 이 두 가지 요인이 지난해 情報通信 산업 성장에 있어서 강력한 牽引車가 되었다. 이 두 시장에 관련한 기업은 큰 신장을 기록했다.

87년에 크게 성장한 기업은 웍스테이션 메이커로 선 마이크로시스템은 "네트웍은 곧 컴퓨터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년대비 203% 증가의 이익을 올렸다. 같은 웍스테이션 메이커인 아폴로 컴퓨터는 244%의 이익증가를 기록.

IBM호환기 메이커의 신장도 뚜렷하다. 암달이 이익증가 347%로 1위. 이같은 큰 신장은 86년의 저조한 매출 실적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콤팩 컴퓨터도 선과 아폴로에 지지 않을 만큼 늘었다. 콤팩은 182%의 성장을 기록했고 매출순위도 86년의 33위에서 24위로 꺾충뛰었다. 텐던 컴퓨터도 좋은 실적을 올려 매출액 1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23위에 올랐다.

네트웍사업 기업 합병 바람

유니시스는 지난해 11월에 TI네트웍 관련제품의 대 메이커인 타임프렉스사를 흡수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올해 유니시스는 바로크와 스펙리의 情報통신 사업부문에 이어 강력한 통신관련 사업체계를 갖추게 된다.

타임프렉스에 이어서 같은 TI다중화장치의 메이커 데이터텔사가 영국의 10억달러 매출 기업인 다우티 그룹으로 들어갔다. 그밖에 87년에 흡수 합병된 企業에는 네트웍 스위칭 시스템즈사, 폭스 리서치사, 스펙트럼 디지털사, 에쿠아트리얼 커뮤니케이션즈사 등이 있다.

업계소식통들은 성장이 뚜렷한 TI다중화장치메이커인 네트웍 이큅먼트 테크놀러지즈(NET)도 IBM에 흡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ET는 최근 IBM과 판매와 개발 분야에서 제휴할 것을 합의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어소시에이티즈사는 네트웍의 중요성을 고려, LAN이나 광역네트웍 메이커의 매수를 시도하고 있다. 이미 폭스 리서치를 흡수하고 마이컴 시스템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매수에는 실패했으나 언저먼 베이스와도 협상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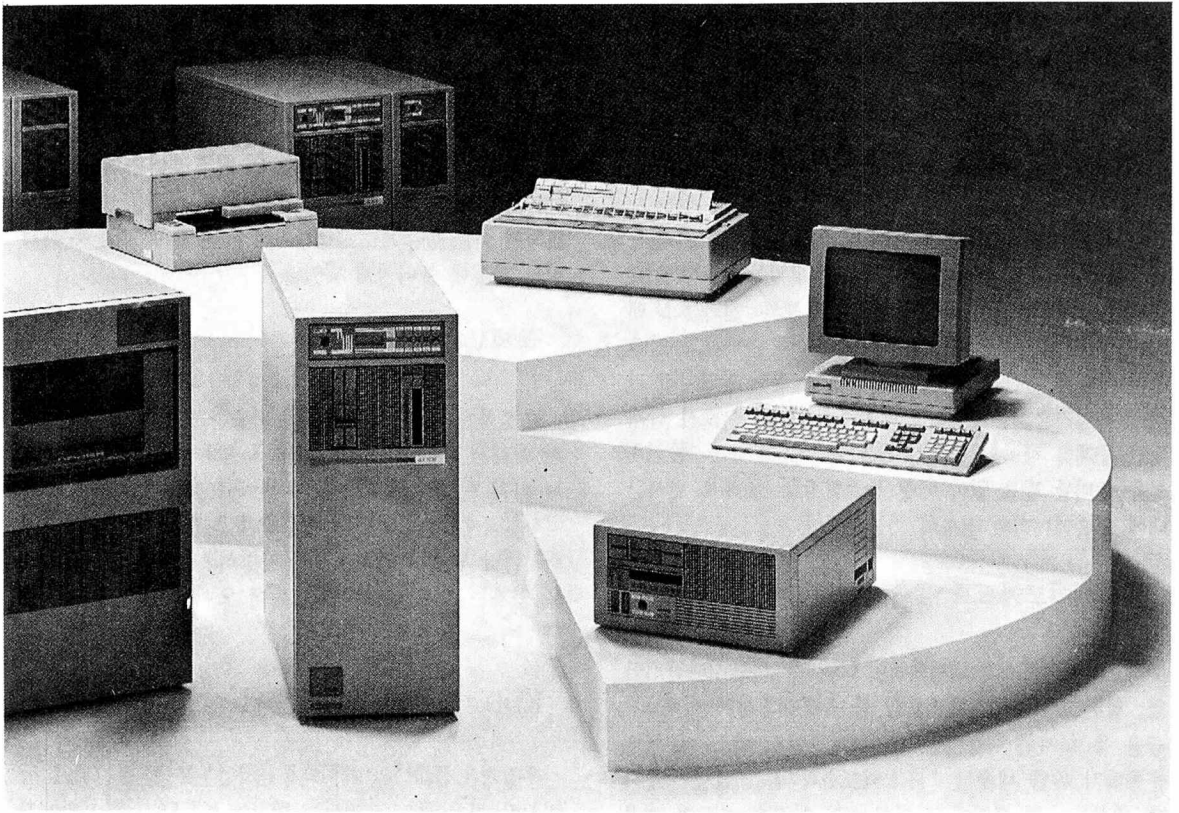
ITT, 고속디지털 專用線 서비스

美ITT사는 56bps의 고속디지털 專用回線 서비스를 전미 12개도시에서 개시한다. ITT는 선발 AT&T나 MCI와 비교하여 각각 27~35%, 13~19% 수준으로 대폭싼 요금을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ITT는 전미 57개도시를 연결하는 專用回線 서비스도 개시한다.

日 本

NTT, ISDN서비스 개시

NTT(일본전신전화)는 88년 3월부터 東京, 大阪, 나고야 등 3개 도시에 ISDN(종합정보통신망) 서비스를 개시한다. 전화, 팩시밀리, 비디오텍스, 컴퓨터 등의 모든 통신을 전국을 하나의 디지털통신망으로 통합, 서비스 한다는 구상이 드디어 실현을 보게 된 것이다. 기본요금은 월 2만엔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유럽각국의 요금을 감안,



조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신衛星 이용촉진회사 설립

우정성은 通信衛星을 이용한 CATV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ele Vision)의 건설을 맡을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通信기기 메이커, 민간통신위성회사, CATV용 프로그램 공급회사, 주택·도시정비공단등이 공동투자해서 금년 4월에 설립된다. SMATV이란 주택단지에 통신위성의 受信專用地球局을 설치하고 위성을 거치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각 주택에 분배하는 이용형태를 말한다. 우정성은 새회사의 설립으로 오는 93년까지 全國에서 약 6백만 세대의 SMATV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퍼스컴통신과 워드프로세서통신 급성장

우정성의 전기통신심의회가 만든 「電氣通信 고도화비전」에 따르면 퍼스컴간의 통신과 워드프로세서간의 통신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퍼스컴의 통신이용은 지난 85년의 5만대에서 91년에 95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며, 워드프로세서의 통신이용

은 91년도에 무려 270만대 즉, 퍼스컴통신의 3배 가까이 된다.

85년의 워드프로세서 설치대수는 150만대. 같은 해 퍼스컴 설치대수 5백 19만대의 33% 이하였으나 86년에 워드프로세서의 출하대수가 85년에 비해 2배 이상인 2백만대나 되어 퍼스컴의 출하대수 1백40만대보다 훨씬 앞섰다.

이같은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91년에는 퍼스컴의 설치대수가 1천1백만대(연평균 18% 성장), 워드프로세서의 설치대수는 1천440만대(연평균 41% 성장)가 될 것으로 보인다.

KDD, 차량탑재형 안테나 준비

KDD(국제전신전화)는 8월부터 국제고속디지털 전용회선을 시간대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IBS(인텔 셋비즈니스서비스)를 이용하며 인텔셋의 전파(KU 밴드)를 送受信하는 차량 탑재형 안테나를 준비하고 있다. 미리 예약된 시간과 장소에 이 차량에 실린 안테나가 가서 고속디지털전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로서 국제적인 중계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국내부분의 통신회선을 준비할 필요 없이 곧장 통신위성을 통하여 단시간 내에 고속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해졌다.

프리페이드카드로 새會社

정보처리서비스의 대형회사인 CSK와 마쯔시다전기산업, 일본교통공사 西武백화점 등 유동대회사와 서비스, 금융 등 46사가 공동으로 프리페이드카드 시스템을 발행, 운용하기 위한 새會社 “日本카드센터”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각 분야에 있어서의 이같은 카드의 이용 방법을 개발, 연구하는 동시에 카드의 처리에 따르는 決濟처리 등을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静止畫TV전화 규격통일

NTT는 미쯔비시전기와 소니가 합의한 静止畫TV전화기의 統一規格案을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제품을 만들기 시작 했다. 시판은 규격의 상세한 내용이 정해지는 올 봄 이후가 될 것이다. 소니와의 공동개발품을 판매하고 있는 NTT가 통일규격을 취급함으로써 규격통일이 문제는 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IROFA, 미니MAP을 본격연구

국제로보트·FA기술센터(IROFA)는 생산자동화를 위한 MAP의 간이형 “미니MAP”의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다. 학자, FA관련5團體, 대기업 29사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적인 연구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87년부터 3년간에 걸쳐 기본조사에서 設計, 시험 등을 실시한다.

第2KDD 2社 인가

우정성은 新國際通信事業(第2KDD)을 지향하는 종합상사계의 일본국제통신(ITJ)과 伊藤忠상사와 국제디지털통신(IDC) 등 2개사에 第1種 電氣通信事業을 인가했다. 이로서 이들 회사는 내년 초에 사용을 개시하기 위하여 外國國際通信사업자와의 回線 접속 교섭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국제VAN에 獨自方式

우정성은 국제 VAN사업에 진출하는 사업자가 일정조건 아래서 1~3년간은 X.75나 X.400 등의 國際표준과는 다른 독자적 프로토콜을 사용하는것을 인정할 方針이다. 국제법제상으로는 國際標準方式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엄밀히 적용하면 독자방식으로 다년간 제공해 온 업자는 소프트웨어 변경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KDD, 데이터통신사업 분리

우정성은 KDD의 데이터통신사업본부를 분리시켜 독립시킬 방침이다. 분리되는 회사는 NTT와 자본관계가 없는 순수한 民間企業으로 하고 데이터 본부의 사업 가운데 공공성이 높아서 타산을 맞추기 어려운 사업은 계속해서 NTT가 맡게된다. 이 방침이 실현되면 연간 8백억~1천억엔 외형의 일본최대의 第2種電氣通信事業者가 탄생하게 된다.

유 럽

北太平洋 광통신망 군사전략면 주목

국제적인 전기통신사업자인 C W社가 世界一周 광통

신망 설치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北太平洋케이블(NPC)이 군사전략면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NPC는 일본에서 알라스카를 경유 미대륙에 이르는 太平洋橫斷海底케이블이다.

이 NPC는 다음의 2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는 미국의 군사전략상의 요충지인 알라스카와 미대륙을 직결시키는 최초의 광통신망이며, 둘째로 태평양 전역에서 군사용 情報通信망의 신뢰성을 비약적으로 높인다는 점이다. 한편 태평양지역에서는 올해 군사용을 시작한다는 계획하에 第3太平洋橫斷케이블(TPC-3)의 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NPC는 이 TPC-3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다.

C&W는 NPC를 홍콩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美 컴퓨터 3社 SPAG에 참가

IBM, DEC, HP 등 미국 대컴퓨터 3사는 OSI(開放型 시스템間 相互接續)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의 共同體「S PAG서비스」에 참가했다. 이는 이기종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한 通信標準規格인 OSI의 실현을 지향하여 유럽 컴퓨터메이커들이 서로의 共同開發, 실험을 적극화하기 위한 것이다.

로이터, FM네트로 市況情報 제공

로이터통신사는 메인스트림 데이터의 FM 副搬送波를 이용해서 市況情報를 제공한다. 로이터는 시황데이터를 전화회선을 경유하여 우선 메인스트림의 본사에 전송한다. 거기서 메인스트림의 전미 11개 FM放送局에 이 情報를 보내고 FM방송국에서 각 유저에 전파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포켓벨 유럽 統一計劃

유럽 13개국을 커버하는 포켓벨의 統一서비스 計劃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각국의 통신관련기업이 공동출자 새會社를 설립하게 될 이 계획은 국경을 넘어서 포켓벨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구상으로 오는 91년 서비스 개시를 目標로 하고 있다.

美나이텍스와 MIT 共同研究

미국 第2位の 지방전화 회사인 나이텍스와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 광범위한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나이텍스는 MIT의 연구소와 함께 次世代通信네트워크 등의 개발에 유용한 각종기술을 연구하게 된다. 연구 테마는 ① 멀티미디어터미널의 개발 ② 광섬유네트워크의 이용법 ③ 音声인식 등.

西独 TV전화 90년에

서독우정성(DBP)은 오는 90년말부터 자국내의 TV 전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DBP는 내년 말부터 ISDN(종합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데 TV 전화서비스는 ISDN서비스의 일환이다. DBP는 TV전화 서비스를 실시하기까지 유럽의 각 메이커에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여 표준제품을 만든 후 다시 각사로 하여금 量産케 할 예정이다.

가격은 10만대가 보급될 경우 1대당 2천~3천 마르크로 또한 월 1백 마르크 이하로 임대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西独 通信料 引下

서독우정성(DBP)은 국내 및 국제 TV會議서비스 사용요금을 대폭 인하함과 동시에 TV電話 서비스를 계기로 새로운 요금제도를 도입했다. DBP의 새요금은 체제에 따라 다르다. 서독-일본간의 경우 서독측의 통신요금은 변경전 시간당 2천5백마르크에서 1천5백마르크로 40% 인하되었다.

IBM, PBX에 進出

IBM은 構内交換機(PBX)를 개발하고 올 해부터 유럽에서 판매한다. 오래전부터 通信分野를 강화해왔고 지난 84년 미국의 로姆社를 매수한 IBM은 자사제품의 PBX로 유럽시장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새로 개발한 제품은 1천250回線-용량의 8750 BCS. 오는 6월, 영국을 시작으로 8월 이탈리아, 10월 서독으로 판매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생산은 IBM의 영국하반트공장이 맡는다. 또한 미국과 아시아 시장용으로 PBX 9750BCS를 함께 개발했으며, 수개월 이내에는 3천회선 이상의 PBX를 새로 발표할 예정이다. ■